

보도자료

루이자 갈리아르디

Hard Feelings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택사 서울

전시기간: 2024 년 3 월 22 일 - 4 월 13 일

전시 오프닝: 2024 년 3 월 21 일 (목) 오후 5 - 7 시

아티스트 토크: 루이자 갈리아르디 & 서민희: 오후 5 시 30 분

언론 프리뷰: 2024 년 3 월 21 일 (목) 오전 11 시 - 오후 4 시

장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427 1 층 택사 서울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가 택사(Taxa) 서울 주최로 스위스 출신 작가 루이자 갈리아르디(Louisa Gagliardi)의 전시 <Hard Feelings>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본 갤러리와 루이자 갈리아르디의 두 번째 개인전이자 갈리아르디의 첫 번째 한국 전시로 새로운 회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갈리아르디의 작품은 대부분 회화로 불러 왔으며, 사실 회화를 제작하는 것이 맞지만, 역사적으로 정의된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리함과 기발함이 돋보이는 기법으로 완성된다. 여러 면에서 두드러지는 회화적 특징과는 역설적으로 표면상 보이는 비정통적 접근법은 최근 수년간 이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접근법을 감안할 때 더욱 희귀성을 가진다. 일부에서는 비비안 수터(Vivian Suter), 샘 길리엄(Sam Gilliam),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의 확장된 회화(expanded painting)를 떠올릴 수 있지만 갈리아르디의 작품을 차별화하는 도구는 조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그녀의 배경에 있다.

초반에는 프리 핸드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로 시작되는 그녀의 작품은 이후 회화와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 형식과 스케일, 기타 형태의 퍼포먼스로 변모한다. 안료와 붓 터치가 선명하지만 대부분 디지털 프린팅이다. 물감은 인쇄 잉크로 캔버스는 PVC 로 래커는 젤로 치환되어 유구한 역사의 회화보다 광고업계에서 더 친숙한 매체를 사용한다.

갈리아르디가 사용하는 산업적 방식은 팝아트나 관련 장르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의문에 천착하여 프로세스의 문제를 넘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현실과 경계의 문제까지 파고든다. 대상의 친숙함과 이질감이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환영처럼 묘사된 작품들은 공명하는 적막감을 자아낸다.

갈리아르디의 회화에 종종 등장하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갇힌 듯한 형상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시대의 혼돈을 반영한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우리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소셜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페르소나와 아이덴티티의 전파와 확산이다. 스크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여과되고 통합되는 환경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선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인물과 건축, 존재와 부재 사이에는 부조화가 발생한다. 이 명백한 부조화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할과 완전히 분리된 대상들의 행동에 반영되어 있다. 인물과 대상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미완의 현장에 등장하여 일부가 된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존재의 이중적 혼란이 낳은 결과를 상징한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건물, 사물의 끝없는 표류는 테크놀로지의 물리적 거리보다 사람과 실제 대면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우리의 양면성을 반영한다. 디지털 정보의 파급에 대한 암시가 가득한 그녀의 작품은 필름과 영화의 포괄적이고 몽환적인 측면도 강하게 내포한다.

GALERIE EVA PRESENHUBER

이전 작품을 보면 호텔이나 오피스에 있을 법한 전이공간을 연상시키는 넓은 붉은색 방에 유리 데스크가 놓여 있고 한 인물이 앉아 있다. 실내건축의 요소는 이 환경이 실내임을 암시하지만 바닥은 잔디를 닮아 있다. 도시와 시골의 모호한 경계는 그녀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스케일을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만들어진 기념비 같은 인물이 빌딩 위에 앉아 자신의 압도적 존재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배경과 전경 사이를 오가며 오묘한 아우라를 만드는 투명한 형상들이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기존의 도상학을 계승하고 있지만 오브제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잠자는 사람은 편안해 보이지만 그 옆에 보이는 처방약은 존재의 고통을 예고한다. 얼음 덩어리에 싸인 시계는 우리 존재에 대한 시간의 지배와 그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들은 정물을 표현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브제마다 생명력을 갖고 있다. 약 옆에 놓인 열쇠고리는 휴식 중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얼음 덩어리가 남긴 손 자국은 도움의 손길인 동시에 잠재적 위기를 상징한다.

갈리아르디의 작업은 현대인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대변한다. 작품 대부분이 디지털 시대의 불안한 현실, 자아에 내재하는 요구와 압박을 암시한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보의 공세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정보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티스트의 상징을 보며 우리를 연결시킨다고 주장하는 데이터가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아담 카(Adam Carr)

루이자 갈리아르디(Louisa Gagliardi, 스위스 시옹 1989년 출생)는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택사 서울, 벨기에 그림베르겐 스트롬비크 문화센터(Cultuurcentrum Strombeek)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근래 갈리아르디를 조명한 전문전이 스위스 취리히 쿤스트할레 취리히 에디션 VFO (2023), 스위스 취리히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2023), 체코 프라하 내셔널 갤러리(2022), 스위스 바젤 스위스 아트 어워즈(2021), 스위스 제네바 현대미술관(2021), 중국 상하이 안테나 스페이스(2020), 홍콩 맥나마라 아트 프로젝트(2019), 영국 웨일스 MOSTYN(2019), 독일 베를린 오픈포럼(2018)에서 개최되었으며, 2022년 아트바젤 언리미티드에서 <Tête-à-tête>라는 대형작품을 선보였다. 그룹전으로는 스위스 취리히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2022-23), 체코 프라하 내셔널 갤러리(2021), 스위스 프리부르 Walltriss(2019), 중국 상하이 UN 아트 센터(2019), 스위스 취리히 폴리머스 록(2018), 스위스 아라우 아르가우 미술관(2018), 스위스 장크트갈렌 쿤스트할레 장크트갈렌(2018), 덴마크 홈레벡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2017), 스위스 취리히 하우스 컨스트럭티브 미술관(2017) 전시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onlinesales@presenhuber.com, +41 78 652 98 81).

보도 사진과 관련 정보는 홍보 담당 다비드 울리히(David Ulrichs)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press@presenhuber.com, +49 176 5033 0135).